

눈도 못 뜬 손흥민... 눈 앞 캄캄 벤투호

UEFA 챔스 마르세유전서 부상 코 출혈·눈 주위 크게 부어올라 뇌진탕 여부도 검사 해봐야 3주 앞 둔 월드컵 한국팀 준비상

‘손세이셔널’ 손흥민(30)이 불의의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은 물론 한국 축구대표팀도 바짝 긴장했다.

손흥민은 2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마르세유(프랑스)와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D조 최종 6차전 원정 경기에서 전반 29분 만에 교체 아웃됐다.

그는 전반 23분 중원에서 공중볼 경합을 하다 마르세유 찬셀 음벤퍼의 어깨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쳐 쓰러졌다.

손흥민의 코에선 출혈이 발생했고, 코와 눈 주위가 크게 부어올랐다.

의료진과 상태를 확인한 손흥민은 전반 27분께 그라운드를 벗어나 골장 터널로 향했다. 전반 29분엔 그를 대신해 이브 비수마가 투입됐다.

토트넘은 이날 클레망 랑글레와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의 득점으로 2-1 역전승을 거두고 조 1위로 UCL 16강에 진출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라커룸에서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호이비에르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토트넘 선수들의 사진에는 손흥민의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왼쪽 눈은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다.

퇴장 징계로 벤치에 앉지 못한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 대신 기자회견에 참석한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코치는 “내일 손흥민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그는 라커룸으로 들어간 뒤 조금 나아졌고, 승리를 함께 축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토트넘은 이미 히사슬리송과 데얀 클루세브스키가 부상으로 공격진에서 이탈한 상태다.

콘테 감독은 뻔뻔한 일정에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 여기에 손흥민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고민은 더 커진다.

만약 손흥민이 뇌진탕 증세를 보일 경우 7일 이전에 열리는 리버풀과 정규리그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다.

영국 풋볼리던은 “손흥민이 경기를 뭘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뇌진탕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며 결정 가능성을 전했다.



손흥민이 2일 프랑스 마르세유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마르세유와 2022-2023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최종 6차전에서 마르세유 음벤퍼와 충돌해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라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축구협회(FA)의 규정에 따르면 뇌진탕 진단을 받은 선수는 최소 6일간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스텔리니 코치는 “뇌진탕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손흥민은 얼굴을 다쳤고, 눈이 부어올랐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핵심 멤버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손흥민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면, 벤투호에도 비상이 걸린다.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

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2일 하나같이 ‘형님’ 손흥민의 부상을 걱정했다.

센터백 조유민(26·대전)은 “흥민이 형이 다친 것을 나도(중계로) 봤고, 그래서 많이 걱정되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대표팀에 워낙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을 이겨내고 대표팀에 올 거로 생각

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스트라이커 오현규(21·수원)도 “흥민이 형은 대한민국 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면서 “월드컵에 꼭 필요한 선수인 형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 흥민이 형과 같이 경기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호령 “내년엔 더 많은 안타 치겠다”

올시즌 수비로 외야 호령 “와일드카드 결정전 아쉬워”

수비로 외야를 호령한 KIA 타이거즈 김호령이 더 분주한 2023시즌을 꿈꾼다.

KIA 김호령은 KBO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수비 실력을 갖춘 외야수다. 올 시즌에도 놀라운 수비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특히 팀의 8연패를 끊은 수비는 올 시즌 명장면 중의 하나다.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가 벌어진 7월 8일, KIA는 5-3으로 앞선 상황에서 9회초를 맞았다.

마무리 정해영이 마운드에 출격했고 2사 1·3루에서 상대한 허주석의 타구가 외야로 멀리 날아갔다. 중견수 키를 넘기는 큰 타구가 예상됐지만 김호령이 달려가 공을 낚아채면서 KIA는 8연패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또 하나 김호령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린 경기가 있었다. 이번에는 타석에서 주인공이 됐다.

10월 7일 KT위즈와의 홈경기. 아직 5위를 확정하지 못했던 이날은 나지환의 은퇴식날이기도 했다.

그리고 황대인의 투런을 시작으로 최형우의 타구가 중앙 담장을 넘어갔고, 김호령의 쇄기 스피드까지 나오면서 KIA는 11-1 대승을 거두고 5위 싸움의 승자가 됐다. 또 기본 좋은 승리와 함께 나지환의 은퇴식이 최고의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김호령은 “8연패 하면서 팀이 많이 힘들었는데



김호령

그때 좋은 수비로 팀을 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끝내기 수비’ 장면을 떠올렸다.

또 “잘한 수비는 찾아보기도 하는 데 그럴 때는 뿌듯하다. 좋은 수비가 나올 때마다 흥분만큼이나 투수, 선수들이 좋아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좋은 수비를 하면 기분이 좋다”며 “수비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딱히 부담은 없다. 선수들도 좋아해주니 더 잘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흥민 순간도 짜릿했다. 2015년 동국대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김호령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담장을 넘기면서 18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올 시즌 홈런이 없던 김호령은 최종전 전날, 5위를 확정하는 쇄기포로 ‘0’의 침묵을 깬

다.

김호령은 “올해는 홈런 못 치겠구나 했었다. 그 날 훈련하면서 우성이가 ‘올해는 형 홈런이 없네?’라고 말했다. 그런데 바로 홈런을 쳐서 신기했다”며 “내가 홈런타자는 아니니까 홈런을 노리지는 않았는데 좋은 홈런이 나왔다. 그날이 또 지안이 형 은퇴식이었는데 다행히 선수들도 다 잘해주고 이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4년 만에 맞은 KIA의 포스트시즌. 팬들은 4년 전 LG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에서 마지막 공을 쫓아가던 김호령을 떠올렸다.

김호령은 “맞는 순간 졌다는 걸 알았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다. 부모님이 항상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고 끝까지 하라고 하셨다. 그때도 그 생각으로 끝까지 쫓아갔다. 포기하지 않는 게 좋은 모습이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다.

아쉽게도 이번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김호령의 수비를 볼 수 없었다. K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단 9명의 야수만 경기에 나서면서 벤치에서 대기했던 김호령은 그라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김호령은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갔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올해 우리 팀이 포스트시즌을 치렀고 좋은 선수들도 군대에서 복귀한만큼 내년에는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수비 열심히 하겠다. 올해보다 조금 더 출루하고, 안타도 더 많이 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뮌헨, UEFA 챔스 조별리그 6전 전승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를 6전 전승으로 마무리했다.

뮌헨은 2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시즌 UCL 조별리그 C조 최종 6차전 홈 경기에서 뱅자맹 파바르와 에릭 막심 추포모링의 득점에 힘입어 인터밀란(이탈리아)을 2-0으로 꺾었다.

이미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된 뮌헨은 6승(승점 18)으로 기본 좋게 조별리그를 마쳤다.

2019-2020시즌과 2021-2022시즌에도 조별리그 전 경기에서 승리한 뮌헨은 UCL 최초로 세 번이나 조별리그 전승을 달성한 팀이 됐다.

더불어 UCL 홈 경기에서는 2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 이 부문에서도 신기록을 썼다. /연합뉴스

필라델피아, 홈런 5개 불꽃 방망이

WS 한 경기 최다 타이 기록 7-0 휴스턴 꺾고 2승 1패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역대 월드시리즈(WS) 한 경기 최다 타이인 홈런 5개를 치며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갔다.

필라델피아는 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WS 3차전에서 휴스턴 에스트로스스를 7-0으로 꺾었다.

휴스턴 원정 1, 2차전에서 1승 1패를 한 필라델피아는 7전4승제의 WS에서 먼저 2승(1패)째를 챙겼다.

필라델피아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홈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린 WS 경기에서 5개의 홈런 포를 쏘아 올렸다.

MLB닷컴 사라 랭스 기사는 트위터에 “WS 한 경기 홈런 5개는 역대 타이 기록”이라며 “1928년 4차전 뉴욕 양키스, 1989년 3차전 오를랜드 애슬레틱스, 2017년 5차전 휴스턴이 같은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올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최우수 선수(MVP) 브라이스 하퍼가 포문을 열었다.

하퍼는 1회말 2사 1루, 상대 선발 랜스 매컬러스 주니어의 조구 시속 136km의 너클 커브를 견여 올려 우중간 담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2회에는 선두타자 알렉스 보이 좌중월 솔로포를 터뜨렸고, 2사 후에는 브랜던 마시가 우중월 솔로 홈런을 쳤다. 올 시즌 NL 홈런왕 카일 슈워버는 5회 1사 1루에서 중앙 펜스를 넘겼고, 다음 타자 라이 호스킨스도 좌월 솔로포를 작렬했다. 하퍼, 보, 마시, 슈워버, 호스킨스는 WS 개인 첫 홈런을 신고했다. /연합뉴스